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김한모.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김병준.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김상돈.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이주순.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고원석.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Fax: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도행전 10:34.37-43	제2독서	콜로새서 3:1-4	복음	요한 20:1-9
--------	------	------------------	------	------------	----	-----------

◎말씀 < 매일 부활을 살아가기 >

알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곁에 머무르셨던 그분은 극한의 고통과 죽음을 몸소 겪으신 후 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한 줌 새로 사멸할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참 생명에 참여할 문을 열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기에, 사도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1코린 15,14) 이토록 중요한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떻게 자리잡고 있나요? 많은 분이 부활이나 성탄 같은 중요한 날에만 성당을 찾는다고 해서 하느님이 오랜만에 당신을 찾아온 자녀들을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시지는 않겠죠. 오히려 갖가지 이유로 평소에는 주님을 잊고 살다가도 때가 되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듯 다시 성당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느님은 마치 명절에 곁에 차려입고 시골에 내려온 자녀들을 맞이하는 부모처럼

반갑고 애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어서 오렴, 와서 좀 쉬다 가렴...” 하고 맞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많은 분들이 부활이나 성탄에만 성당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부활이나 성탄이 매년 돌아오는 연중 ‘행사’ 로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활은 일 년에 한번, 봄이 되면 으레 울려 퍼지는 달달한 벚꽃 노래 같은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는 매일 악습과 죄에 물든 나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매일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먼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분이 활짝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집과 자기애에 사로잡힌 나와 결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매일 결심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4월3일(화)	부활 팔일 축제 내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1,720.00 \$ 1,025.00
4월4일(수)	부활 팔일 축제 내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130.00 \$ 100.00
4월5일(목)	부활 팔일 축제 내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원캠페인	\$ 28.00 \$ 200.00
4월6일(금)	부활 팔일 축제 내 금요일	구역미사	기타수입 사제관건축	\$ 100.00 \$ 0.00
4월7일(토)	부활 팔일 축제 내 토요일	오전10시30분 (성모신심미사)	합 계	\$ 3,303.00
4월8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1명 성인:214명
교무금봉헌자	염영호(1-12월)정춘자(4-5월)진엘리사(3-5월)황성연.조영진(3-4월)손창식(1-4월)이경희(2-3월)김광희.김승재(4월)김은영.김형진.김채홍.김평옥.이상기.이재성.박종윤.안선미(3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 본당은 친교의 집. 기도하는 집. 동네의 샘입니다)

부활의 표징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부활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1코린 15, 14)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토대이며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불가능한 예수님의 부활을 과연 어떻게 신앙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표징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표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마태 28, 1-8; 마르 16, 1-8; 루카 24, 1-12; 요한 20, 1-10)’의 발견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진 것, 예수님의 시신을 싣던 아마포와 얼굴 수건이 무덤 한 곳에 개켜져 있는 것(요한 20, 6-7 참조)이 부활을 유추할 수 있는 표지들입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실재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루카 24.5~6 참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여자들이었는데 당시 법에 따르면 여자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빈 무덤을 보았던 요한 사도에 관해 그가 “보고 믿었다.” (요한 20, 8)라고 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발현)는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여인들,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사도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자신에게도 나타났다고 말합니다(1코린 15, 6~8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나타냄으로써 표징을 드러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다려 온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리스도교에 입교함으로써 예수님 부활의 표징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후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를 한꺼번에 무려 153마리나 잡게 했던 기적(요한 21, 11 참조)을 통해 부활하신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시대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물리적 역사적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 사건이며 신앙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표징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황애다/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안나 백정심. 막달레나/전기례. 베레나/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추소연. 세실리아/엠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서향자. 글라라/김초지. 마리아 황순이. 마리아/최이주. 베아따/이규청. 제노비아 신용경. 그레고리오/엠모니카/배미성. 오틀리아 박모란. 글라라/김광진. 요한/원헤리나. 헬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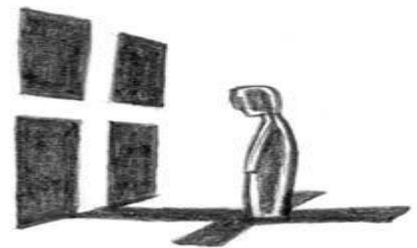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율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한오임. 소피아의 영혼	익명			
연	한오임. 소피아의 영혼	김미숙. 모니카			

간  
장  
종  
지

◎ 기적 ◎

다시 살아나신 이여, 내 귀한 기적이여,  
우리 거리 비록 멀지만 당신은 잘 보신다.  
우리 소리 비록 작지만 당신은 잘 들으신다.  
때가 되면 다시 살리소서, 내 귀한 기적이여.  
(마종기 노렌조. 시인, 의사/최창원 니콜라오. 화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b>신세계여행사</b> 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p><b>Kim' s Pro Handymen</b> 주택수리일체.무료견적 수리비용 절감 5810 Shadow Creek Rd. Sacramento CA,95841 김광열 (510)789-7876 kimkwangyeo152@gmail.com</p>	<p><b>FARMERS</b> <b>배정순 종합보험</b>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b>에어컨 수리</b> 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	--	---	---

<p><b>SNOW WHITE DENTAL</b>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한국어</p>	<p><b>클라라 가정양로원</b>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b>서은미 부동산</b> <b>RealtyOneGroup</b>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b>Hair Story Salon</b>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	--	--	--

<p><b>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b>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b>1.2.3 Auto</b> <b>Body정비</b>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b>JIMMY KIM</b> <b>GOLF SCHOOL</b>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	---	---

<p><b>최병엽공인회계사</b> 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Bad Credit?</b> <b>Call For Free Credit</b> <b>Titan Credit</b> 1911 Douglas Blvd. Suite 85-416 Roseville CA 95661 Larry Chiarella,Esq (916)709-7777 rarry@titancredit.com</p>	<p><b>Samurai Sushi</b>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b> <b>Optometry</b>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	--	---	--

--	--	--	--

